

10조 규모 민간·군공항 이전사업 '턴키' 추진 유력

〈설계·시공 일괄입찰〉

광주시, 공기 단축·조기 착공 방안 검토
4년 이상 당겨져... 4년 이내 착공 목표
사실상 국방부 승인 절차만 남아 주목
지난달 열린 6자 협의체서 공감대 형성
국가 지원 확대·재원 조달 방안이 관건

광주시가 총 10조원 규모의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사업'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턴키로 추진할 경우 사업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고 조기 착공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다만, 국가 지원 규모 확대와 재원 조달 방안 마련, 국방부 승인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턴키 방식 도입 여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턴키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가 내부적으로 공기 단축 효과와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턴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의 시장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속



이전 기다리는 광주공항 광주시가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턴키 방식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공항을 배경으로 이동중인 공군 전투기. /광주매일신문 DB

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군공항 이전 부지가 올해 안에 무안으로 최종 확정되는 전제 아래 기본계획 수립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방부 로드맵에 따라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7월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이전 부지는 10-11월께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부지가 무안으로 확정되면 광주시는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턴키 방식 도입 여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 중반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사업 기간이 10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설계 단계에만 3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 발주 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턴키 방식은 설계·시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최소 3년 이상, 절차 상으로는 최대 4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설계사와 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사업 추진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적으로 광주시장이 사업 시행자지만, 향후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할지, 아니면 공공주도 또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된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는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민간·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등을 포함한 전체 개발 규모로 세부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서 턴키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지만 아직 국방부 승인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 선결 과제가 남아 있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달 열린 6자 협의체 논의에서도 공기 단축 방안으로 턴키 방식이 제시된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전부지가 올해 안에 무안으로 확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사업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턴키 방식 적용 여부 역시 이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은진 기자

통합특별시 주청사 입지 지역내 갈등 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입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역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2·5·7면

6·3 지방선거 기간 속속되고 있던 주청사 문제와 관련, 무안군이 유치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남 서남권(남악 도청사)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와 전남 동부권도 실질적 기능 이전을 바라고 있어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관련 논란과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무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민간 합동 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무안군, 주청사 유치 민관대책위 구성

행정안전부, 단일 주사무소 지정 요구

꺾당선자 3청사 균형 활용 방침 불구

특별시 출범 초 민심 가를 최대 이슈

대척위 공동위원장으로 김산 무안군수와 박

문제 무안군변영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는 무안 주청사 확정을 위한 정책 제안과 대정부 건의, 시민 공감대 확산,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대책위는 ▲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3개 청사 균형 운영 방식 거부 ▲전남도청의 광역 행정 기능 축소 방지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처우 보장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안을 중심으로 서남권 시·군이 참여하는 범 시민 연대도 구축해 주청사 유치가 나서는 한편, 민·당선자 인수위원회에도 주청사 유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자는 3개 청사(광주시청, 전남도청, 동부본부) 균형 활용 방안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서부권·전남 동부권 등 3개

권역 모두 주청사 입지 문제에 지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민·당선자의 의지와는 별개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광주지역에서는 통합특별시의 중심이자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광주에 주청사가 위치해야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남권에서는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순천·여수·광양 등 동부권 역시 그동안 행정 중심지에서 소외됐던 만큼 주청사 입지는 동부권이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운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단일 주사무소 지정을 요구해 광주·전남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사무소 위치가 결국 주청사 입지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어서다.

민형배 당선자 측은 출범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해 광주·무안·순천 3개 청사를 병행 활용하며 순회 근무한 뒤 영구 용역, 공문화를 거쳐 주청사 위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주청사 문제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역 민심까지도 동질 수도 있다"며 "민형배 당선자가 주청사 관련 논란·갈등을 잠재울 추진력과 갈등 조정력을 보여 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구례·보성도 농어촌기본소득 받는다 3면

화물차차고지 확인 허술 '밤샘주차' 악순환 6면

득점권서 터져야상위권 도약가능하다 16면

세상을 밝히는 전기에너지, 그 중심에 (주)정이전기가 있습니다

(주)정이전기는 태양광 발전장치와 LED 조명, 그리고 특수 케이블 분야에서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수배전반부터, 극한의 환경에서도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전달하는 산업용·솔라 특수 케이블까지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는 (주)정이전기만의 엄격한 품질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든든한 기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정이전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부터 고성능 산업용 케이블 공급까지, 에너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산업 현장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수배전반은 물론, 에너지 전송의 핵심인 솔라 및 특수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 검증된 제품만을 엄선합니다. 우리는 최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현장에 가장 최적화된 에너지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이사 김철



주요품목

태양광 발전장치 | 수배전반 | LED 조명 | 산업용특수케이블 | 솔라케이블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65

연락처 | 062-511-0081